

도시관광의 구성적 진정성 척도개발 연구: 일본 오사카 개별여행객을 대상으로

조은경* · 심창섭**

요 약

단체관광에서 개별관광으로 관광 방식이 변화하고 관광의 대상이 확장되면서 관광목적지로서 도시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도시라는 공간이 지닌 복합성과 다차원성으로 인해 관광학 측면에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본 연구는 관광객의 근원적 욕구인 진정성 추구라는 측면에서 도시관광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진정성의 다양한 유형 가운데 구성적 진정성은 진정성을 탈근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한 개념으로서 도시관광과 같은 현대적 관광을 이해하는데 적합한 틀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표적인 도시관광목적지 가운데 하나인 일본 오사카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들이 인식하는 도시관광의 구성적 진정성의 세부차원을 도출해 유효화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인 관광객이 일본 오사카에서 경험한 도시관광의 구성적 진정성은 지역성, 일상성, 미디어성, 시간성의 4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관광학 및 관광산업과 관련된 세가지의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도시관광에 대한 구성적 진정성의 세부구조를 파악하였다. 둘째, 진정성이 현대관광을 이해하기 위한 유효한 분석틀로서 여전히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도시관광에서 도시민과 관광객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핵심용어: 도시관광, 진정성, 구성적 진정성, 오사카, 척도개발

※ 이 논문은 조은경의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 이 논문은 2019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한 논문임

*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과 석사(주저자), ck8117@naver.com

** 가천대학교 관광경영학과 부교수(교신저자), cshim@gachon.ac.kr

I. 서론

관광목적지로서 도시지역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Ashworth & Page, 2011).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유럽의 주요 국가의 관광객 증가율은 8.4%인 반면 도시지역 관광객의 증가율은 22.4%로 나타나 도시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도 2017년 빅데이터로 분석한 여행트렌드의 하나로 도심재생과 원도심여행을 선정해 도시가 관광의 공간적 배경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했다(한국관광공사, 2018, 2019). 사실 파리, 뉴욕, 바르셀로나 등 이미 관광목적지로 오랫동안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도시들도 많이 있지만 관광의 대상이 자연경관이나 역사유적 등에서 쇼핑, 맛집, 의료, 공연 등으로 확대되면서 도시 제공하는 콘텐츠가 관광객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더 나아가 지역의 삶 자체를 가까이서 경험하고자하는 관광객의 욕구가 늘어나면서 많은 인구와 기능이 다양한 일상 생태계를 구성하는 도시의 관광매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여겨진다(조광익, 심창섭; 2019, 최승묵; 2019). 반면 다양한 유·무형의 요소가 복합되어 있고 빠른 변화가 계속되는 도시의 특성상 관광학의 시각에서 도시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시도는 부족한 상황이고 비도시 맥락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전통적인 관광이론의 적용도 사실상 제한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와 같은 현대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관광활동을 이해하기 위해 다시 학술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개념이 진정성(고유성, Authenticity)이다. 관광학에서 진정성은 관광이라는 현상이 발생하는 근원적인 기제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1970년대 이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MacCannell, 1973). 관광객은 관광활동을 통해 일상에서 경험하기 힘든 진정성, 즉 ‘진짜’를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으며 진정성은 객관적 진정성(Objective authenticity), 구성적 진정성(Constructive authenticity), 실존적 진정성(Existential authenticity)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설명되고 있다(Wang, 1999). 초창기 논의에서는 관광대상의 절대적, 내재적 가치를 의미하는 객관적 진정성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다면 최근에는 관광객들이 인식하는 ‘진짜’라는 것이 고정된 가치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가치라고 설명하는 구성적 진정성 및 자아에 대한 진정한 경험을 의미하는 실존적 진정성으로 논의의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김소혜, 김철원, 2019; Canavan & McCamley, 2021).

특히 관광대상의 가치에 있어 관광객의 해석과 관점을 중시하는 구성적 진정성은 탈근대사회로 일컬어지는 20세기 후반 이후의 개별여행 위주의 관광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대적인 공간과 새롭게 등장하는 활동으로 가득 찬 도시관광의 경우 관광객의 동기 및 행동을 객관적 진정성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무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성적 진정성의 개념을 다양한 관광현상에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데 주관성과 유연성을 강조하는 구성적 진정성의 본질적 특성상 정량적인 분석보다는 개념적, 정성적 접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심창섭, 2019; Moor, Buchmann, Månsson, & Fisher, 2021). 그러나 갈수록 중요성이 더해지는 도시관광과 관련하여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관광 경험을 보다 일반화해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 도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관광에서의 구성적 진정성 척도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도시관광을 구성적 진정성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한국인 개별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해외 도시 가운데 하나인 일본 오사카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한국관광공사, 2017; 스카이스캐너, 2018; 오사카관광국, 2018), 이 도시를 관광 목적으로 방문한 한국인이 어떤 세부적 의미에서 구성적 진정성을 경험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도시관광과 구성적 진정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거쳐 심층면접, 예비조사, 본조사의 3단계의 과정을 통해 도시관광의 구성적 진정성의 세부차원을 도출 및 유효화하였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도시관광

20세기 초 전 세계의 인구 중 15% 정도가 도시에 거주했으나 2020년 기준으로 56.2%로 증가하였고 2050년엔 68%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World Economic Forum, 2021). 우리나라는 도시인구비율이 더욱 높아 2020년 기준 91.8%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국토교통부, 2021). 많은 인구 및 기능이 밀집해 있는 도시지역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중심지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장소가 형성되고 수많은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된다. 사실 전통적으로 관광학에서 도시는 관광목적지(Destination)로서 개념화되기 보다는 관광객이 평소 주거, 업무 등 일상을 보내다 비도시로 관광을 떠나는 출발지(Origin)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쇼핑, 맛집탐방, 유행탐색 등이 관광목적으로 부각되고 거리, 골목, 마을 등 지역의 일상을 가까이서 경험하고자 하는 트렌드가 심화되면서 관광목적지로서 도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조광익, 심창섭, 2019).

도시관광은 도시 내부 혹은 도시 외부인에 의해서 도시의 각종 매력물과 편의시설 및 도시의 이미지를 관광대상으로 하여 발생하는 관광현상으로 정의된다(김향자, 유지윤, 2001). 도시관광은 비도시지역의 관광과 비교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도시관광객의 목적은 위락 이외에도 업무, 교육, 쇼핑, 의료, VFR 등 매우 광범위하다. 둘째, 도시에서 관광은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아닌 경우가 많아 도시자원의 배타적 활용이 어려우며 도시 내 다른 기능과 자원을 공유해야 한다. 셋째, 도시는 지리적, 기능적 중심지로서 도시의 정체성이 끊임없이 변화하며 이에 따라 새로운 관광매력이 창출된다. 넷째, 도시에서는 도시민들의 여가공간이 관광객의 관광공간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관광과 여가기능의 구분이 모호하다. 다섯째, 도시는 교통의 중심지로서 해당 도시 인근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교통, 숙박, 정보 등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심창섭, 칼라산토스, 2012).

도시관광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따라 학술적·산업적·정책적 관심도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도시관광이 지닌 다차원적, 복합적 특징 때문에 체계적인 접근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Ashworth & Page, 2011). 특히 자연경관, 역사유적, 리조트 등을 대상으로 비도시를 중심으로 발전해 온 관광학의 전통적인 접근방식은 도시의 여러 기존 기능 및 지역 주민의 일상과 조화를 고려해야하는 도시에서의 관광에 있어 여러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조광익, 심창섭, 2019). 따라서 도시의 다양한 기능, 산업, 문화, 장소가 자생적으로 창출하는 여러 콘텐츠들이 도시의 매력이 되고 이를 도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한국관광공사, 2019).

2. 구성적 진정성

관광에서의 진정성(Authenticity)은 관광객이 일상을 떠나 관광활동을 통해 ‘진짜’를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도시화, 상업화되는 현대사회에서 관광이라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 근원적인 과정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진정성 개념에 따르면 개인이 관광에 참여하는 형태는 다양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지향점은 공통적으로 ‘진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설명된다. 관광에서의 진정성과 관련된 논의는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Boorstin(1964), MacCannell(1973), Wang(1999), Kim과 Jamal(2007) 등에 의해 활발히 논의되어 오고 있으며 현대관광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개념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Wang(1999)은 그동안의 관련 논의를 포괄하여 관광에서의 진정성의 유형을 객관적(Objective), 구성적(Constructive), 실존적(Existential) 진정성의 세 가지로 구분해 설명하였다. 객관적 진정성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측정가능한 진정성이며 구성적 진정성은 다양한 기대, 해석, 맥락 등을 반영한 진정성이고 실존적 진정성은 관광을 통해 경험하는 관광객의 진정한 자아를 의미한다. 객관적, 구성적, 실존적 진정성으로 대표되는 관광에서의 진정성 개념의 논의과정은 우리 인류가 ‘진짜’라는 규범적 가치에 대해 시대적 흐름에 따라 어떤 개념적 변화를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Chhabra, Healy & Sills, 2003; 송주연·김남조, 2018; 심창섭, 2019).

특히 구성주의(Constructivism)에 철학적 기초를 두고 있는 구성적 진정성 개념은 객관적 기준을 강조하는 기존의 진정성 논의가 현대 관광의 복잡한 양상을 설명하는데 갖게 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이 관점에서 진정성은 상대적이고 맥락적인 개념이며 관광객의 배경, 기대, 욕구 등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구성적 진정성은 다양한 관광객들의 관광 대상에 대한 해석과 관점들의 지속적인 협상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특정 관광대상이 지닌 구성적 진정성에 대한 이해는 관광객의 주관적인 해석이 중요시되는 현대관광에서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Wang, 1999; Canavan & McCamley, 2021). 개별여행객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유·무형의 관광대상을 경험하는 도시관광의 경우 객관적 진정성의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며 관광주체와 관광대상 간의 상호작용과 진정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대한 고려까지 반영한 진정성의 구성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Moor et al., 2021).

관광대상에 대한 의미부여에 있어 사회문화적 맥락 및 개인의 주관성을 강조하는 구성적 진정성의 특성상 관련된 연구는 주로 개념연구 및 정성적 접근이 주를 이루었다. Burner(2001)는 케냐 마사이족에 의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는 진정성에 대해 분석하였고 관광객의 상상과 기대, 자연스러운 변화, 관광객과 현지인의 교류 등의 과정을 통해 진정성이 구성되고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심창섭과 상삼요(2017)는 신사동 가로수길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의 경험을 에스노그래피를 적용해 분석했는데 이들이 추구하는 진정성은 연출되지 않은 일상적 진정성, 지속적 변화를 통한 최신 유행의 진정성, 미디어에 등장한 것을 경험하고 싶은 미디어 진정성 등으로 나타났다. 김소혜와 김철원(2019)은 구성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예술관광지 방문객의 내러티브를 진정성의 측면에서 분석했는데 관광 대상물의 원형성, 공연자의 특성 및 주변환경과 상호작용, 자아반영이 촉발한 감각과 정서, 일상을 집어넣어 진정성 피하기 등의 방식으로 진정성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구성적 진정성에 대한 정량적 접근도 일부 진행되었지만 주로 구성적 진정성을 단일차원으로 포함한 모형을 활용하고 있어 복합적인 개념인 구성적 진정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닌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본 연구의 목적인 도시관광의 구성적 진정성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조사의 대상으로 일본 오사카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한국인 개별여행객을 선정하였다. 일본 오사카는 2017년 기준 약 1,111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한 국제적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일본 오사카를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2017년 기준 약 241만 명으로 2016년 대비 53% 증가세를 보였으며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한 도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한국관광공사, 2017; 스카이스캐너, 2018; 오사카관광국, 2018). 오사카의 대표적 관광명소로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오사카성, 해유관, 도톤보리, 구로몬시장, 우메다 스카이빌딩, 스미요시 타이샤 덴진바스지 상점가 등이 있으며 전통유적부터 현대적 공간까지 다양한 유형의 장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오사카는 최근 한국인의 도시관광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연구의 대상지로 판단되었다.

2. 척도개발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인 도시관광의 구성적 진정성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Churchill(1979)의 척도개발 절차를 참고하여 총 3단계의 절차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도시관광의 구성적 진정성의 세부차원 및 측정문항을 도출하기 위해 도시관광 및 구성적 진정성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개별여행을 통한 도시관광 경험자를 대상

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2018년 6월에 진행된 심층면접조사에는 총 13명이 참여하였다. 선행연구 고찰 및 심층면접조사를 바탕으로 도출된 문항을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 이상 전문가 5인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예비조사를 위한 측정문항으로 확정되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도출된 측정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일본 오사카를 개별여행으로 방문한 한국인을 4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측정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조사결과는 SPSS 21.0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및 Cronbach's alpha를 이용한 신뢰도분석을 진행하였다. 각 측정문항의 요인적재치 및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일부 문항이 제거되고 본 조사를 위한 최종 측정문항이 확정되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도출된 측정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온라인조사업체를 활용하여 일본 오사카를 개별여행으로 방문한 한국인 26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측정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조사결과는 SPSS 21.0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요인적재치 및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제거되었다. 마지막으로 AMOS 21.0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수렴타당도, 판별타당도 검증을 거쳐 최종 척도를 제안하였다.

IV. 실증분석

1. 표본의 특성

본 조사는 총 260명이 참여하였으며 성별은 남자가 125명(48.1%), 여자가 135명(51.9%)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20대가 66명(25.4%), 30대가 77명(29.6%), 40대가 63명(24.2%), 50대 이상이 54명(20.8%)로 나타났다. 학력은 전문대/대졸 이상이 182명(7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직업은 사무직 134명(51.5%), 전문직 45명(1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는 미혼 116명(44.6%), 기혼 144명(55.4%)이며 월소득은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108명(41.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 탐색적 요인분석

앞선 단계를 통해 도출된 도시관광의 구성적 진정성 척도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베리맥스 회전에 의한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Eigen value 1.0 이상인 요인들로 추출하였다. 분석결과 '나는 오사카에서 최근 가장 인기있는 장소를 방문했다'의 1개 문항의 요인적재치가 0.5 미만으로 나타나 제거되었다. 최종적으로 지역성, 일상성, 미디어성, 시간성의 4개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제거된 문항을 제외한 20개 항목의 요인적재치가 0.5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요인의 Cronbach α 값이 모두 0.7을

상회하여 문항의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Hair, Black, Babin & Anderson, 2010).

<Table 1>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struct	Item	Description	Factor Loading	Cronbach's α
Local authenticity	LA1	I experienced local scenery of Osaka	.827	.891
	LA2	I experienced local atmosphere of Osaka	.767	
	LA3	I experienced distinctiveness of Osaka	.748	
	LA4	I experienced local culture of Osaka	.745	
	LA5	I experienced local uniqueness of Osaka	.742	
	LA6	I experienced what only Osaka can offer	.617	
	LA7	I experienced what I expected for Osaka	.582	
Daily authenticity	DA1	I experienced everyday life of Osaka people	.862	.911
	DA2	I experienced daily life of Osaka people	.850	
	DA3	I experienced ordinary life of Osaka people	.820	
	DA4	I felt that I lived there	.803	
	DA5	I felt that I was a part of Osaka	.747	
Media authenticity	MA1	I visited the places appearing on TV	.789	.812
	MA2	In Osaka, I experienced what I saw on TV	.764	
	MA3	In Osaka, I experienced what I saw on SNS	.734	
	MA4	Osaka was similar with what I saw on TV	.672	
	MA5	I experienced the food appearing on TV	.633	
Temporal authenticity	TA1	I visited the hottest places in Osaka	.743	.729
	TA2	I think Osaka shows current trend	.733	
	TA3	I experienced the latest trend in Osaka	.704	

3.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요인 및 문항의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CMIN/DF가 2.249로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RMR, GFI, NFI, IFI, RFI, TLI, CFI, RMSEA 등 모든 지수도 수용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적합한 모형으로 판명되었다.

<Table 2> Goodness-of-Fit Indices fo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Indices	Results	Recommended Value
CMIN/DF	2.249	P<.05
RMR	.044	<.05
GFI	.874	>.8
NFI	.873	>.8
IFI	.926	>.9
RFI	.853	>.8
TLI	.913	>.9
CFI	.925	>.9
RMSEA	.069	>.08

각 요인의 집중타당도 및 판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념신뢰도(CR) 및 평균분산추출(AVE)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문항의 표준화계수는 0.7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CR값 역시 0.8 이상으로 나타났고 AVE값이 모두 0.4 이상으로 모든 요인은 집중타당도 및 판별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Diamantopoulos & Siguaw, 2000).

<Table 3>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nstruct	Item	Standardized Factor Loading	Composite Reliability	AVE
Local authenticity	LA1	0.623	.932	.547
	LA2	0.637		
	LA3	0.749		
	LA4	0.761		
	LA5	0.781		
	LA6	0.836		
	LA7	0.765		
Daily authenticity	DA1	0.819	.872	.674
	DA2	0.761		
	DA3	0.872		
	DA4	0.868		
	DA5	0.779		
Media authenticity	MA1	0.649	.823	.467
	MA2	0.756		
	MA3	0.689		
	MA4	0.715		
	MA5	0.597		
Temporal authenticity	TA1	0.668	.801	.510
	TA2	0.734		
	TA3	0.739		

마지막으로 척도의 판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Fornell과 Larker(1981)의 판별타당도 검증 방식에 따라 AVE값과 상관계수의 제곱값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각 요인의 상관계수 제곱값이 모두 AVE값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4가지 요인이 서로 다른 개념임을 확인하였고 판별 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Table 4> Results of Discriminant Validity Analysis

	Local authenticity	Daily authenticity	Media authenticity	Temporal authenticity
Local authenticity	.5470	.508	.556	.675
Daily authenticity	.2581	.6740	.311	.596
Media authenticity	.3091	.0967	.467	.445
Temporal authenticity	.4556	.3552	.198	.510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신뢰도 및 타당도를 모두 충족한 도시관광의 구성적 진정성 척도가 개발되었다. 최종 척도는 지역성 7문항, 일상성 5문항, 미디어성 5문항, 시간성 3문항 등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Table 5> Scale of Constructive Authenticity in Urban Tourism

Construct	Description
Local authenticity	I experienced local scenery of Osaka
	I experienced local atmosphere of Osaka
	I experienced distinctiveness of Osaka
	I experienced local culture of Osaka
	I experienced local uniqueness of Osaka
	I experienced what only Osaka can offer
	I experienced what I expected for Osaka
Daily authenticity	I experienced everyday life of Osaka people
	I experienced daily life of Osaka people
	I experienced ordinary life of Osaka people
	I felt that I lived there
	I felt that I was a part of Osaka
Media authenticity	I visited the places appearing on TV
	In Osaka, I experienced what I saw on TV
	In Osaka, I experienced what I saw on SNS
	Osaka was similar with what I saw on TV
	I experienced the food appearing on TV
Temporal authenticity	I visited the hottest places in Osaka
	I think Osaka shows current trend
	I experienced the latest trend in Osaka

V. 결론 및 시사점

단체관광에서 개별관광으로 관광 방식이 변화하고 관광의 대상이 확장되면서 도시지역이 관광목적지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반면 도시라는 공간이 지닌 물리적, 사회문화적 복합성과 다차원성으로 인하여 관광학 측면에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도시가 관광목적지로서 어떤 매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구성적 진정성의 틀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성적 진정성은 관광학에서 가장 오랫동안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개념 가운데 하나인 진정성을 탈근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한 개념으로서 도시관광과 같은 현대적 관광을 이해하는데 적합한 틀로 판단되었다. 방법론적으로는 개별관광객이 많이 찾는 도시관광목적지인 일본 오사카를 방문한 한국인을 연구의 대상으로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이 지각하는 오사카 도시관광의 구성적 진정성의 세부차원을 찾아 유효화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지역성, 일상성, 미디어성, 시간성의 4가지 차원의 최종척도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도시관광에서의 구성적 진정성 척도에 최종적으로 포함된 4가지 차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지역성은 다른 지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해당 도시만의 특별하고 고유한 장소와 문화를 의미한다. 일상성은 관광객을 위해 연출된 것이 아닌 해당 도시민의 일상적인 삶을 의미한다. 미디어성은 대중매체를 통해 형성된 해당 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시간성은 박제되지 않은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살아있는 도시의 활력을 의미한다. 즉 도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이와 같은 요소를 통해 해당 도시에 대한 진정성을 형성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학술적,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시관광을 구성하는 진정성이 지닌 구조를 보다 세부적으로 보여 준다. 관광에서 진정성이 단일차원이 아닌 다차원의 구조를 지닌다는 사실은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다루었지만 대부분 객관적, 구성적, 실존적 진정성의 차원으로 설명해 왔다. 특히 구성적 진정성의 세부적 구조에 대한 정량적 접근은 부족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오사카 도시관광이라는 배경에서 구성적 진정성이 지역성, 일상성, 미디어성, 시간성이라는 4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즉 어떤 세부적인 요소가 진정성을 형성하는지를 드러냄으로써 향후 도시관광 관련된 학술연구 및 관련 정책 및 전략의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성과 일상성과 관련된 연구는 그동안 상당 부분 진행이 되어 왔으나 미디어가 형성하는 진정성과 지역의 가장 최신의 모습을 의미하는 시간적 진정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도출되었다는 측면은 관광현상의 이해에 있어 중요한 가치를 지닐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진정성 개념이 현대관광을 이해하기 위한 분석틀로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0세기 후반 이후 개별관광객의 증가로 대표되는 탈근대적 변화는 기존의 관광의 공식에 심각한 도전을 가져오고 있으며 이론과 현장의 괴리 속에 관광연구의 역할에 대한 회의적 시각까지도 등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970년대 이후 반 세기동안 치열한 학술적 논쟁의 과정을 거쳐 온 진정성의 관점에서의 접근은 단순한 하나의 개념이나 변수

가 아닌 관광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혼치 않은 도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행히도 관광객의 ‘진짜’에 대한 욕구가 기존과는 다른 의미일지라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진정성의 틀은 이러한 의미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시의 관광목적 방문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정책적으로 새롭게 고려해야할 측면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시관광객들이 진정성을 경험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로 도출된 로컬 문화, 지역 일상, 최신 트렌드 등은 모두 관광객이 도시민의 삶 속으로 더 밀접하고 깊숙이 들어가고자 하는 욕구를 보여준다. 실제로 도시관광의 핵심 매력물로 꼽히는 거리, 마을, 골목, 시장 등은 사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관광지이기보다는 도시민이 일상을 영위하는 공간에 가깝다. 관광객이 급격히 늘어난 국내·외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주민과의 갈등 즉 과잉관광(Overtourism)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진정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도출된 대중매체의 영향력 또한 평범한 도시의 일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많은 사례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시관광이 양적인 관광객 증가만을 지향하기보다는 도시민과 관광객이 같은 공간을 조화롭게 공유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지향해야 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다.

흥미로운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우선 일본 오사카라는 특정 도시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한국인이라는 제한된 연구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로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구성적 진정성의 세부구조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공간적, 인구통계적 맥락에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양한 세부공간에서 여러 유형의 관광활동이 가능한 도시관광의 특성상 도시를 통합적인 관광대상으로 전제하고 진행된 본 연구는 도시관광의 전반적인 이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각 공간 및 활동에는 부합하지 않는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도시 내의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구성적 진정성의 틀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가 축적되는 것은 개별관광 증가와 관광대상의 확장이라는 현대관광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대응을 위해 필수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국토교통부.(2021). **도시계획현황**. 세종: 국토교통부.
- 김소혜·김철원.(2019). 예술 관광지 방문 경험과 진정성 고찰-블로그 담화 분석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43(8), 137-158.
- 김향자·유지윤.(2001). **도시관광 진흥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오사카관광국.(2018). 2017년 오사카 방일외국인수
- 송주연·김남조.(2018). 근대문화유산관광지의 객관적 진정성, 실존적 진정성, 만족 간의 영향관계

- :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를 중심으로. **관광연구**, 33(5), 43-66.
- 스카이스캐너.(2018). 빅데이터로 보는 2017 스카이스캐너
- 심창섭.(2019). 관광에서 진정성 문제. **문화관광론**. 백산출판사.
- 심창섭·상삼요.(2017). 도시관광에서 현대적 진정성의 의미. **관광연구**, 32(2), 430-448.
- 심창섭·칼라산토스.(2012). 도시관광에서의 진정성 개념에 관한 탐색적 고찰. **관광연구논총**, 24(3), 33-56.
- 조광익·심창섭.(2019). 문화관광이란 무엇인가?. **문화관광론**. 백산출판사.
- 최승묵(2019). 여가·위락·휴식 목적 방한 개별관광객의 다목적지 관광 특성 및 만족도 연구: 방문 광역지자체 수를 중심으로. **관광연구**, 34(7), 215-234.
- 한국관광공사.(2018). 17/18 여행 트렌드 빅데이터 분석결과
- 한국관광공사.(2019). **관광거점도시 육성 방안 연구**. 강원: 한국관광공사.
- Ashworth, G., & Page, S. J. (2011). Urban tourism research: Recent progress and current paradoxes. *Tourism Management*, 32(1), 1-15.
- Boorstin, D. (1964). *The image*. New York: Vintage
- Bruner, E.M. (2001). The Maasai and the Lion King: Authenticity, Nationalism, and Globalization in African Tourism. *American Ethnologist*, 28: 881-908.
- Canavan, B., & McCamley, C. (2021). Negotiating authenticity: Three modernities. *Annals of Tourism Research*, 88, 103185.
- Chhabra, D., Healy, R., & Sills, E. (2003). Staged authenticity and heritage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30(3), 702-719
- Churchill Jr, G. A. (1979). A paradigm for developing better measures of marketing construct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64-73.
- Diamantopoulos, A., & Siguaw, J. A. (2013). *Introducing LISREL: A Guide for the Uninitiated*. SAGE.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 Anderson, R. E. (2010). *Multivariate Data Analysis*, 7th. Upper Saddle River, NJ:Prentice Hal
- Kim, H., & Jamal, T. (2007). Touristic quest for existential authenticity. *Annals of Tourism Research*, 34(1), 181-201.
- MacCannell, Dean. (1973). Staged Authenticity: Arrangements of Social Place in Tourist Setting.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9. 586-603.
- Moore, K., Buchmann, A., Månsson, M., & Fisher, D. (2021). Authenticity in tourism theory and experience. Practically indispensable and theoretically mischievous?. *Annals of Tourism Research*, 89, 103208.
- Wang, N. (1999). Rethinking authenticity in tourism experience. *Annals of Tourism Research*,

26(2), 349-370.

World Economic Forum (2021). How has the world's urban population changed from 1950 to today?. Available from online at <https://url.kr/anpbkm>

접수일자: 2021-10-05

심사완료: 2021-11-11

게재확정: 2021-11-30

Scale Development of Constructive Authenticity in Urban Tourism: the case of Korean FITs to Osaka

Cho, Eunkyung* · Shim, Changsup**

Abstract

Despite the growing importance of urban tourism, an integrating and systematic analysis of urban tourism is still insufficient due to the complex and multifaceted nature of urban environments. This study employs the concept of authenticity, one of the most actively discussed concepts in tourism studies for last few decades, to understand urban tourism. In particular, constructive authenticity, which contains the postmodern perspective, is used as an analytic framework to identify the diverse meanings urban tourists assign. We conducted interviews and surveys with Korean FITs who had traveled to Osaka, Japan to develop a scale of constructive authenticity in urban tourism. Osaka was selected as a research site because it was known as one of the most visited urban destination among Korean tourist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ere used to identify and validate sub-dimensions of constructive authenticity in the context of urban tourism. The results show that respondents experienced four dimensions of constructive authenticity, namely, local authenticity, daily authenticity, media authenticity, and temporal authenticity, while traveling the urban area. Based on these results, we conclude that the coexistence between urban residents and tourists is the most crucial in sustainable management of urban tourism and that the concept of authenticity is still a valid tool for analyzing contemporary tourism phenomena.

Keywords: Urban tourism, Authenticity, Constructive authenticity, Osaka, Scale development

* Master, Department of Tourism Management, Gachon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Tourism Management, Gachon University